

과학이랑 놀자... 준비물은 무한 상상력



광주과학관 4월 행사 편성
‘필사이언스’ 전문가 포럼
한눈에 보는 한국과학 50년사
과학 그리기 대회 등 다채

대한민국 과학기술 50주년과 과학의 달을 맞아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강신영)이 내일부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주·전남지역 청소년들에게 창의·소통의 기회를 제공,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를 준비했다.

◇‘제4차 산업혁명, 또 다른 시작이다’ 필사이언스 포럼=광주과학관과 광주·전남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광주일보와 광주과학기술원 등이 후원하는 ‘제3회 필사이언스 포럼’이 4월 1일 오후 2시 과학관 1층 상상홀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 또 다른 시작이다’로 방문객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전문가들은 ‘모든 것이 연결되는 보다 지능적인 융합’이라고 설명한다.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인 다보스포럼(Davos Forum)에서 세계 10대 위험요인(global risk)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의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당시 세계경제포럼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회장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선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조속경 과학문화전시본부장이 진행을 맡았고, 광재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이 기조 발제자로 나선다.

장재형 광주과학기술원 차세대에너지연구소장과 신찬훈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본부장, 김창식 한국ICT융합협동조합이사장,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학계·연구계·산업계·경제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바이러스 에피소드1’ 특별기획전=광주과학관은 필사이언스 포럼과 함께 이날 특별기획전 ‘바이러스 에피소드 1.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진행한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일반인들의 공포와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마련됐다.

바이러스를 발견한 과학자들의 관찰 이야기와 눈으로 볼 수 없는 바이러스의 생김새와 특징, 백신·치료제의 개발 과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졌

다. 여기에 일상생활 속 미생물 체험과 3D프린터로 만나는 바이러스, 바이러스 놀이터, 바이러스와 인간의 대결 게임 등 체험형 프로그램들도 준비돼 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보호복 착용과 개인 위생관리 방법 등 바이러스와 세균을 주제로 전문해설사의 테마해설이 제공된다. 전시기간 중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특별강연도 열 계획이다.

특별기획전 ‘바이러스 에피소드1, 보이지 않는 세계’는 광주과학관과 과학관이 공동주최해 오는 7월 3일까지 이어지며, 질병관리본부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의 후원으로 각 기관의 연구성과 등도 함께 전시된다.

◇봄 과학축제, ‘응답하라 사이언스’=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응답하라 사이언스’는 한국의 과학기술 발달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프롤로그 ‘과학, 그 혁명의 로드맵을 따라’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과학기술 50년사를 조망하는 ‘두근두근 코리아’, 1988년과 2016년 생활 속 과학기술 제품들을 비교하며 부모와 자녀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응답하라 디지털’ 등으로 꾸며져 있다.

또 광주 첨단지구 출연연구기관들의

대표 성과물과 미래 과학기술을 접해보는 ‘신기술 탐험’ 등 전시와 미니드론, 보드게임 등 체험행사도 운영된다.

지역을 대표하는 미디어아트 이이남 작가는 과학과 예술의 만남을 주제로 ‘만화병풍, Flower, Butterfly’를 선보인다. 행사장 중앙에 그랜드피아노를 배치한 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감 소통 콘서트’도 진행한다.

◇과학기술 50주년 기념, 과학그림 그리기 대회=대한민국 과학기술 50주년을 기념한 ‘2016년 국립광주과학관 과학그림그리기 대회’를 다음달 23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지역 어린이들의 과학적 사고와 예술적 감성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주·전남·전북지역 초등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4월1일부터 1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200명을 모집한다.

크레파스나 물감 사용은 물론, 디지털 장비와 기법을 활용한 그림도 제출 가능하다. 수상자에게는 상품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과 광주시장상, 광주과학관장상 등이 수여된다.

과학의 달 4월을 맞아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리는 행사는 홈페이지(www.sciencecenter.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직장인 62% “퇴근 후 카톡 소리 불편해요”

퇴근 후에도 스마트폰에서 울려대는 각종 사회관계서비스망(SNS) 알람 소리에 직장인 62%가 불편함을 느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난 17~21일 직장인 1040명을 대상으로 업무 시간 외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해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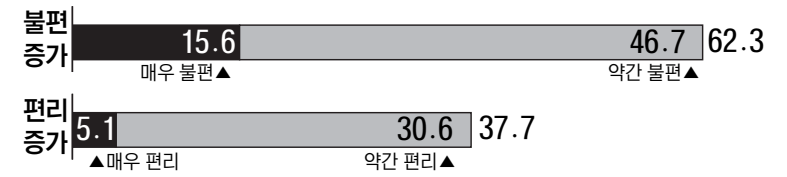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의 62.3%(648명)는 스마트폰 ‘항상 연결’ 때문에 불편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57.6%는 카카오톡·라인 등 모바일메신저를 불편함을 부르는 주범으로 꼽았다. 23.1%는 페이스북·카카오톡·인스타그램 등 SNS, 17.3%는 전화·문자, 2%는 이메일 때문에 불편

했다고 답했다. 공식적인 근무 시간 외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인정·존중해야 한다는 데는 응답자의 86.6%가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권리를 국내에 도입해 입법화한다면 실효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5.7%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언론재단은 업무상 연관된 사람과 사적으로 유대하지 않기 위한 노력도 조사했다. ‘메시지 수신 후 일부러 확인하지 않음’이 74.9%로 가장 많았다. 또 ‘일부러 전화받지 않거나 부재중 전화 무시’(73.8%), ‘문자 메시지 확인 후 답장 안 함’(72.7%) 등의 의견도 있었다. /박기용기자 pboxer@

■ 스마트폰의 ‘항상 연결’ 기능에 대한 전반적 인식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온라인 설문조사 2016년 3월 17~21일

FBI, 아이폰 잠금해제 풀었다

애플 상대 소 취하...사생활 보호-안보 논란 진행형

■ 아이폰 잠금해제 논란 일지



미국 법무부가 애플의 도움 없이 샌버너디노 테러범이 사용하던 아이폰 잠금을 해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아이폰 잠금해제를 놓고 벌인 미국 정부와 애플의 법정 공방은 일단락됐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날 미국 법무부가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서류를 제출, 애플을 상대로 제기했던 아이폰 잠금해제 협조 강제 요청을 취하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서류에서 “정부가 테러범 사예드 파룩의 아이폰에 담긴 정보에 성공적으로 접근했다. 이제 더이상 애플의 협조가 필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은 작년 12월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에서 14명을 숨지게 한 파룩 부부의 총기 테러를 조사하기 위해 애플에 파룩 아이폰 5c의 잠금해제 협조를 강제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낸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애플의 협조를 강제하는 명령을 내렸지만, 애플은 특정 아이폰의 보안을 우회하는 ‘백도어’(뒷문)를 만드는 것은 개인 정보 보호 등에 있어 부작용이 크라며 법원 명령에 이의를 제기해 왔다.

애플은 지난 22일 법원에서 잠금해제 협조 강제 요청의 적법성을 놓고 재판을 벌인 예정이었으나, FBI가 바로 전날인 21일 “애플의 도움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 방법을 찾았으며 이를 시험해 보겠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한 익명의 관계자는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정부가 보안해제 방법을 직접 개발한 게 아니라 민간 기관의 도움을 받았다고 귀띔했다.

법무부의 소송 취하로 국가안보와 사생활 보호 논란 등을 불러왔던 FBI와 애플의 법정공방은 일단락 됐으나, 미국 정부가 모든 아이폰의 보안을 자체적으로 해제하지 못하는 한 앞으로 언제든 비슷한 논란이 재연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애플 측은 이날 법무부의 소송 취하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제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무량불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제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추첨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락잔금대출 지원담당

☎ 062-383-4987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